



임플랜트를 이용한 상악 전치부 단일상실치아의 심미적 수복증례

장재윤*, 양재호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전치부의 단일 치아 상실시에 기존에는 3-unit fixed partial denture로 치료하였다. 그러나 이는 건강한 인접치의 삭제, pontic의 비심미성, 청소성의 결여 등의 문제가 있으며 현재는 임플랜트가 환자와 치과의사들에게 보다 선호되고 있다. 처음 도입시에 임플랜트는 무치악 환자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심미적인 면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도 사용되면서 심미적인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일치아임플랜트가 사용되면서 심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점차 환자들이 결손치 수복을 위하여 인접 건강한 치아의 삭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임플랜트 보철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접 자연치와의 유사한 심미성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임플랜트는 기능적인 면과 함께 심미적인 면이 환자와 치과의사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심미적인 임플랜트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임플랜트의 선택, 식립위치의 정확성, 인접치와 조화되는 보철물의 형태와 표면질감, 색조와 함께 치은에서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emergence profile, 그리고 임플랜트 주위연조직의 적절한 형태와 보철 물에 의한 지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치부 단일상실 치아를 임플랜트로 수복할 때에는 발치된 치아, 방사선사진의 계측을 통한 정확한 임플랜트의 선택, restorative-driven implant placement, 임플랜트 주위 연조직의 보존을 위한 식립위치와 시기의 고려, custom-made 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한 연조직 형성, custom made impression coping을 이용한 정확한 연조직 인상, 인접치에 조화되고 자연스러운 emergence profile을 갖는 보철물의 설계가 중요하다.

이 증례는 30세의 남자환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이 파절되었다. 포스트 코어를 시도하였으나 잔존치질의 양이 부족하여 발거한 후 임플랜트로 보철수복을 하기로 하였다. 심미적인 임플랜트 치료를 위하여 위의 사항들을 custom guided soft tissue healing과 심미적인 전치부 도재 수복물에 초점을 두었다. Zirconium custom abutment를 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In-ceram system으로 수복하여 심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발표하는 바이다.